

# 순천시장 “포스코 갑질 횡포에 맞설 것”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5년간 적자 운행에 대해서 순천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18일 순천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스카이큐브(PRT) 일방적 협약 해지와 순천시민을 상대로 한 1367억원의 보상 청구는 거대기업의 갑질 횡포이며 향후 범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허 시장은 “거대기업 포스코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허 시장은 “애초 스카이큐브는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운영하기로 했는데 2014년 4월에야 실제 운영을 하는 등 첫 시작부터 신뢰를 잃었다”면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자를 순천시에 전가하고 1367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대한상시중재원에 신청한 것은 순천시민을 무시하는 갑질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포스코 자료가 스카이큐브는 신성장 산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순천만에 610여원을 들여 시범 설치한 사업인데도 적자를 운운하면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하지만 “포스코가 국내의 스카이큐브를 판매하려던 계획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포스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벡터스는 폐쇄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실패의 책임을 기업의 손해를 미래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순천시에 떠넘기고, 순천시민 세대당 130만원의 부담이 되는 1367억 원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스카이큐브의 일방적 운영 중지와 이로 인한 도시 이미지 하락, 28만 순천시민의 자존심 추락 등 순천시가 오히려 피해와 손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논란이 있는 포스코의 횡포에 국정감사 요구, 세무감사 요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인데도 유럽에서 스카이큐브를 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시가 갖고 있는 협약서가 공개 되면 사업을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 순천국가정원서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 비난

### 포스코,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손해배상 요구

### 시, 포스코 상시중재원 신청에 시민적 저항시작

많은 포스코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작 18일 오후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원격 측정기를 이용해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서명운동, 촛불 집회, 규탄대회 등 모든 시민적 저항운동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만약에 포스코가 스카이큐브의 콘크리트시설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 후대에 잘못된 정책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조선대 학내 갈등에 화난 학부모들 “자리싸움 그만해”

조선대 학내 갈등이 장기화하자 학부모들이 교수와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을 비판하며 단체를 결성했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조선대가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대학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자리싸움과 사리사욕에 급급해하고 있어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학부모협의회는 “더 이상 지역민과 학생, 학부모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줘서는 안되고 교수와 직원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부모협의회는 “대학의 혁신·발전을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발전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하겠다”며 “학부모협의회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대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 학부모협의회는 현직 재학생 학부모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학내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지난해 8월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총장이 직위해제되고 부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대학 혁신을 위한 학사구조 개편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혁신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지중지란이 확대되고 있어 오는 8월로 예정된 2단계 평가에서 또 다시 낙제점을 받지 않을까 대학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이진호 기자

## 산림청, 내달부터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산림청은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앙기동단속반을

운영,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 인터넷서 중고거래 판매 사기 20대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품질 좋은 휴대전화·블루투스 이어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A(27)씨 등 47명에게 1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인터넷 도박지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다른 판매자의 물품 사진을 게시해 실제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으며, 계좌 개설·해지가 간편한 인터넷 은행에서 만든 20여개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휴대전화 4대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사기 피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증과 사진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최근 구매자들이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정보를 조회한다는 점을 알고서 거래 계좌와 연락처를 자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00여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인형뽑기방 턴 외국인·고교생들 잇따라 검거

광주에서 인형뽑기방을 턴 외국인과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공구를 이용해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만 턴 혐의(특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 자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월5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인형뽑기방 3곳에서 공구를 지폐교환기 틈새에 집어넣고 찌르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30여 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채취자인 자씨는 스포츠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씨는 같은 국적의 20대 남성과 함께 범행했으며,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씨의 공범이 경기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이날 인형뽑기방에서 금품을 훔친 윤모(16)군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광주 동구와 북구 인형뽑기방 5곳에서 공구로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275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년원에서 만난 이들은 철물점에서 소형절단기를 구입한 뒤 모자·마스크를 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돈을 문신 비용과 식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도 인형뽑기방에서 인형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15)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군은 지난 2월20일과 3월10일 아간시각대 광주 남구 모 인형뽑기방 창고에 보관 중인 열쇠로 지폐교환기를 열어 100만 원을 훔치고, 피규어와 인형을 가져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군은 인적이 드문 인형뽑기방의 CCTV 전원을 끄고 셋톱박스를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 관제센터에 딱 걸린 차털이 20대 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새벽시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턴 혐의(절도)로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45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동화와 동전(20만7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서울행 차비를 마련하려고 모자·마스크를 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차량 문을 열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광주시 관제센터의 무전을 받고 출동 수색 30여 분만에 원톱 앞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유씨가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중흥건설**